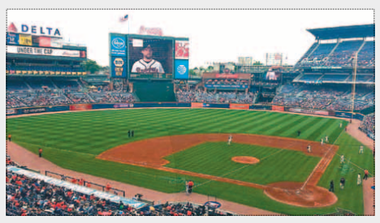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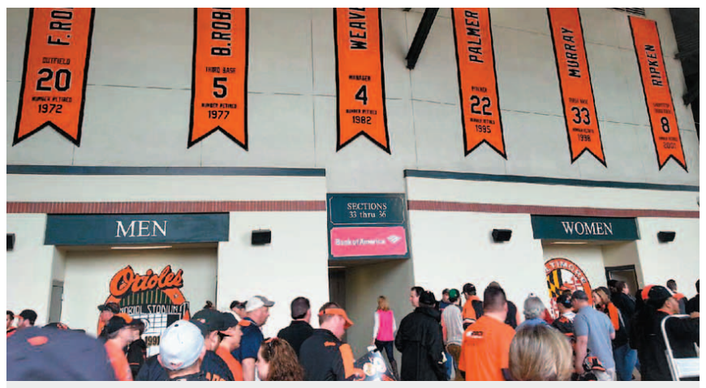
매뉴얼과 역사의 품격…ML구장엔 과거·현재·미래가 공존

고풍스러운 애틀랜타 터너필드 광장에는 영광스런 야구단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애틀랜타(미국 조지아주) | 김영준 기자

느리고 미로같은 애틀랜타 구장…레전드 조형물·동상 즐비

애틀랜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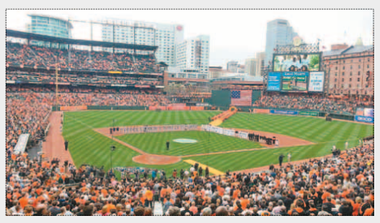




캠든야즈를 둘러보면 볼티모어의 역사 그 자체와 같은 영구결번 선수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볼티모어(미국 메릴랜드주) | 김영준 기자

'모던 클래식' 볼티모어 구장, 야구장 건축물의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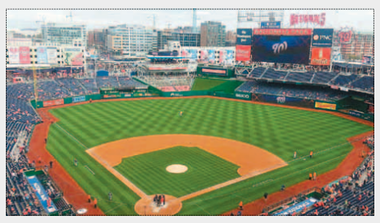
볼티모어



내셔널스파크로 가는 길은 곧 워싱턴 야구단의 역사를 알아가는 길이다. 워싱턴DC | 김영준 기자

친환경적인 워싱턴 구장…대통령 이용한 마케팅 눈길

워싱턴



메이저리그 야구장 탐방기

4월1일(한국시간)부터 11일까지 박병호(미네소타), 김현수(볼티모어), 오승환(세인트루이스)을 취재하기 위해 미국 동부지역을 다녔다. 워싱턴의 내셔널스파크, 볼티모어의 캠든야즈, 애틀랜타의 터너필드가 기자의 현장이었다. 공교롭게도 이 세 야구장은 메이저리그의 과거(터너필드)-현재(캠든야즈)-미래(내셔널스파크)를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미국의 넓은 땅덩어리에 걸맞게 지역마다, 야구단마다 색깔이 달랐다. 그러나 그들이 한결같이 공유하는 가치도 체감할 수 있었다.

●메이저리그 야구장의 과거-현재-미래

애틀랜타의 홈 터너필드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2017년 새로 개장하는 선트러스트파크 이주가 확정된 상태다. 터너필드는 애틀랜타 다운타운 남쪽에 위치해 있다. 도심에 전철이 깔려있지만 터너필드까지 닿지 않는다. 교통 접근성이 해결되지 않고, 야구장 주변 치안문제까지 우려되자 구단은 아예 이사를 결정했다. 애틀랜타는 자금 확충을 위해 구단 지분을 상장하려는 특단의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탓인지 2016년 애틀랜타는 시작부터 리빌딩 모드로, 1991년대부터 2005년까지 내셔널리그 동부지구를 지배했던 바비 콕스 감독 시절의 영광을 찾아볼 길이 없었다. 그래서 어쩐지 더 처량했다. 야구장에서 만난 남부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매사가 느렸고, 야구장 내부는 미로와 같았다.

볼티모어의 캠든야즈는 1992년 건립 이후 야구장 건설의 '스탠더드'가 됐다. 도심 한가운데 지은 '모던 클래식' 야구장이다. 그리 크지 않은 볼티모어에서 캠든야즈는 이너하버와 더불어 이 지역의 랜드마크였다. 4월5일은 미네소타와의 개막전이 열린 날이었는데, 아예 야구장 주변 교통을 통제해버리고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다. 불과 1년 전 흑인폭동이 일어나 이미지가 암울한 볼티모어에서 캠든야즈의 위상은 각별하다. 클럽하우스가 경기시작 4시간 전에 개방돼 일찍 나가지 않으면 경기 전 김현수를 만나기 힘들다.

내셔널스파크가 있는 워싱턴 네이비야드 지역은 치안이 썩 좋지 못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야구장을 보는 순간 눈이 정화되는 느낌이다. 2008년 개장한 이 야구장은 모든 것이 세련됐고, 현대적이다. 전 세계 스포츠 건축물을 통틀어 가장 친환경적인 건설작품으로 꼽힌다. 워싱턴이라는 지리적 특성에 걸맞게 대통령을 이용한 마케팅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클럽하우스에는 버락 오바마 등 역대 대통령의 유니폼과 자필 사인이 전시돼있다.

●ML의 품격은 매뉴얼에서 나온다

미국에서 만난 우리 선수들을 일단 매혹시키는 것이 화려하고 잘 정비된 야구장이다. 그러나 이런 인프라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영역에서도 메이저리그는 확고한 기준을 지니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비가 올 때 대처하는 매뉴얼이다.

기자는 워싱턴과 볼티모어에서 큰 비를 3차례 만났다. 한국 같으면 일찌감치 우천순연이었다. 그러나 이곳은 일단 방수포를 덮고 기다렸다. 2일 미네소타-워싱턴전은 시범경기임에도 예정대로 경기가 열렸다. 5일 캠든야즈에서는 개막전 세리머니만 끝낸 뒤 비도 내리지 않는데 1회에 돌입하지 않고 중단시켰다. 한국 같으면 일단 경기를 시작하고, 비가 내리면 끊을 텐데 이들은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1시간 정도를 기다려 이번엔 비가 내리는데 방수포를 걷었다. 곧 그칠 것이라는 정보를 얻은 듯했다. 그렇게 3차례 경기가 중단됐음에도 기어코 경기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볼거리는 야구장 직원들의 방수포 깔고 덮기 '신공'이었다. 20여명 직원들의 신속한 움직임은 3분 안에 방수포로 내야 전체를 덮었다.

●역사와 전통은 메이저리그의 젖줄

터너필드 앞 광장에는 그동안 애틀랜타를 빛낸 영구결번 선수들을 기념하는 야구공 조형물과 동상이 줄지어 있다. 캠든야즈 매표소 앞 광장에도 볼티모어 레전드의 동상이 줄지어 있다. 특히 외야에서 본부석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광장 한가운데 브룩스 로빈슨 동상은 황금색으로 도금된 글러브를 끼고 있다. 워싱턴은 야구장 매표소로 가는 길에 구단 연혁을 조형물과 땅바닥에 그린 연대기로 표현했다. 메이저리그 팬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는데, '야구를 알고 본다'는 실감이 났다. 취재 중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었지만 개막식에서 김현수가 소개됐을 때, 캠든야즈에 울린 야유는 '볼티모어 팬들이 벅 쇼월터 감독의 손을 들어줬구나'는 정황증거였다. 그럼에도 끝까지 자신의 할 바를 다하는 김현수의 의연함은 더욱 돋보였다. 애틀랜타는 형편없는 경기력으로 연패를 당하자 터너필드 홈팬들이 원정팀 세인트루이스를 응원하는 '조롱'을 보여줬다. 응원하는 팀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매섭게 비판하는 이곳 팬들의 정서를 읽을 수 있었다.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군인과 소방수 등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경의다. 내셔널스파크에서는 3회가 끝나자 야구장에 초청된 군인들을 전광판에 소개했는데, 팬들은 물론 덕아웃의 선수들까지 기립해서 박수를 보냈다. 월드시리즈 우승팀 캔자스시티는 홈 개막전 세리머니의 주빈으로 소방수들을 초청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미네소타, 박병호 142m 대형홈런 조형물 세운다

ESPN 기준 '466피트' 공식 발표 홈구장 타깃필드 비거리신기록 인정

미네소타 박병호(30)의 타깃필드 홈런 여파가 하루가 흘렀음에도 메이저리그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박병호가 17일(한국시간) LA 에인절스전에서 터뜨린 시즌 2호 홈런의 비거리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잇따르고 있다.

당초 홈런이 터진 직후 미네소타 구단은 홈런 비거리를 462피트(140.8m)로 발표했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MLB.com)의 '스탯캐스트'는 451.2피트(137.5m)로 집계했고, ESPN의 홈런 트래커는 466피트(142m)라고 확정했다.

홈런 궤적을 따라가는 것이라 오차야 당연하겠지만, 어느 기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타깃필드의 홈런 역사가 바뀐다. 만약 ESPN 기록을 채택하면 타깃필드 개장 이래 최장거리 홈런이 된다. 종전기록은 2011년 짐 토미의 464피트(141.4m)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18일 '미네소타가 박병호의 홈런이 떨어진 지점에 기념물을 세울 계획이 있다'고 보도했다. ESPN의 기록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박병호의 홈런을 타깃필드 비거리 신기록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이미 미네소타 구단은 이 역사적인 박병호의 홈런볼을 회수해놓은 상태다.

투수친화적이라 홈런이 나오기 힘든 구장으로 악명 높은 타깃필드는 2010년 개장됐다. 토미의 홈런 이후 2012년 조시 윌링엄(132.6m), 2013년 조스밀 핀토(131.4m)에 이어 2014년 케니 바르가스와 조시 윌리엄(135.9m) 그리고 2015년 미겔 사노(135.9m)가 연도별 비거리 기록을 세웠다. 박병호의 홈런이 얼마나 역대급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한편 박병호는 18일 에인절스전에서 7번 지명타자로 출장했으나 5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연장 10회 1사 1루에서 큰 타구를 날렸으나 담장 앞 워닝트랙에서 중견수 플라이로 잡힌 것이 아쉬웠다.

미네소타는 3-2로 이겼지만 박병호는 3연속경기 안타 상승세가 끊어졌고, 시즌 타율은 0.167(36타수 6안타)로 낮아졌다.

김영준 기자

미네소타 박병호가 17일(한국시간) 홈구장 타깃필드에서 때려낸 대형홈런이 구장 역사상 최장거리로 인정됐다. 구단(140.8m)과 MLB닷컴(137.5m), ESPN(142m)의 비거리 기록이 모두 달랐지만 구단은 18일 ESPN의 기록을 인정해 홈런 조형물을 세울 예정이다. 사진은 박병호의 홈런 당시 전광판 모습.

코리안 빅리거 경기 결과
18일(한국시간)

박병호 미네소타

LA 에인절스전(홈)

- 선발출전(7번 지명타자)
- 5타수 0안타 1삼진
- 시즌 타율 0.167(36타수 6안타)
- 팀 3-2 승리

프로스포츠 7개 단체 27일 마케팅 워크숍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18일 "프로스포츠 7개 단체(한국프로축구연맹·한국야구위원회·한국농구연맹·한국여자농구연맹·한국배구연맹·한국프로골프협회·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와 각 단체에 소속된 총 62개 전 구단이 참가한 가운데, 이달 27일부터 1박2일간 충남 안면도 리솜오션캐슬에서 '2016 프로스포츠 마케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프로스포츠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워크숍은 첫날 독일 분데스리가 FC아우크스부르크의 미하엘 스트뢸 대표이사 등이 발제자로 참여하는 '경기장 비즈니스' 관련 콘퍼런스와 2일째 종목별·구단별 마케팅 성공 사례 시상 및 발표로 진행된다. 프로스포츠협회 박재영 사무총장은 "종목, 구단의 경계를 떠나 프로스포츠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 모든 종목, 모든 구단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프로스포츠 발전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며 "이번 워크숍이 각 프로구단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마케팅 성공 사례를 분석해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올림픽 메달보다 어려운 양궁대표 선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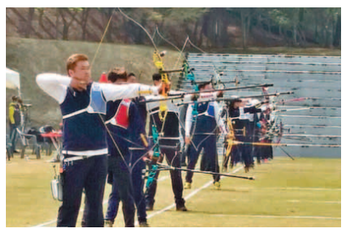
현장리포트

한국양궁은 최고의 올림픽 효자종목이다. 역대 하계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19개)을 안겨줬다. 다른 종목에 비해 훨씬 촘촘하고 두꺼운 선수층과 탁월한 육성 시스템, 우리만의 기술과 노력으로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정상은 오르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려운 법이다. 한국양궁은 매년 국가대표선수들을 새로 선발하고 있어,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올림픽 우승자가 아시안게임 선발전에서 탈락하고, 올림픽 쿼터 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이 올림픽 본선을 밟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국가대표 선발 과정도 상당히 길다. 재야 선발전이 열리는 연말부터 연초까지 일정이 지속된다. '낙타 바늘귀 통과하는' 좁은 문을 뚫기 위한 고통스러운 시간이 수개월 지속된다.

올해는 더욱 특별하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시즌이다. '올림픽 메달보다 어렵다'는 올림픽대표 선발전(사진)이 막바지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자들과 재야 선발전을 통과한 이들이 경합한 3차 선발전(3월)에서 남녀 8명씩이 생존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같은 'KOREA'가 새겨진 유니폼을 걸쳤지만, 모두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은 아니다. 자체 선발전(1·2차 평가전)에서 3위 이내에 들어야 리우로 향한다.

1차 평가전(1~5일·경북 예천)에 이어 15일부터 대전 유성의 LH연수원에서 2차 평가전이 시작됐다. 남자부에선 김우진(청주시청), 구본찬, 오진혁(이상 현대제철), 이승윤, 이우석(이상 코오롱), 임동현(청주시청), 김종호(상무), 정태영(두산중공업)이 마지막 승부를 펼치고 있다. 여자부에선 기보배, 이특영(이상 광주광역시청), 최미선(광주여대), 강채영(경희대), 박미경(대한체육회), 이은경(순천시청), 장혜진, 전성은(이상 LH)이 경합하고 있다.



한 발 한 발에 운명이 걸린 냉혹한 승부. 조준하고 시위를 당기기까지 20초 동안 순간순간이 명암을 가른다. 올림픽대표가 되려면 개인훈련을 제외하고도 공식 연습(3발)을 합쳐 총 4055발을 쏘고, 표적지 확인 후 사선을 왕복하는 거리가 182km에 달한다. 대한양궁협회 김기찬 부회장은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경력이 쌓이고 나이를 먹어도 부담은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도 버텨내는 것은 '함께'라는 단어가 주는 힘 덕분이다. 서로가 친한 동료이자, 선후배다. 휴식시간에 담소를 주고받으며 긴장을 푼다. 하루의 경쟁이 끝나면 서로를 격려하고 등을 두드린다. 양궁은 상대를 꺾어야 내가 살아남는 종목이 아닌, 자신과의 싸움이다. 양궁대표팀 문형철 총감독은 "양궁은 정직하다. 부족하면 네 탓이 아닌, 내 탓이다. 결과에 깨끗이 승복할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올림픽대표 최종엔트리(남녀 각 3명)는 19일 확정된다.

대전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피츠버그 언론 "강정호 슬라이딩 훈련…4월말 주전 복귀"

피츠버그 강정호(29·사진)의 메이저리그 복귀가 한 발 더 가까워진 모양새다.

피츠버그 지역 언론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18일(한국시간) "강정호가 오는 20일부터 마이너리그 트리플A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마지막 재활 점검을 위해 실전에 투입될 것이다. 강정호는 마이너리그에서 최대 20일간 재활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늦어도 5월 8일 이전에 빅리그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14일에도 "강정호가 이틀 연속 평가전에서 5~6이닝을 소화했고, 타격과 주루에도 문제가 없다"며 "매트 위에서 슬라이딩 훈련도 시작했다. 빠르면 4월말쯤 돌아와 피츠버그의 주전 3루수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한 바 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